

Ⅵ. 버려야 할 유산들

金 東 圭 / 고려대 교수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훌륭한 점을 무시하고 깎아버림으로써……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는 건전한 사회기강 조성과 보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오늘을 움직이는 지성인들의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될수 있는 주옥같은 글들을 모아 씨리-즈로 게재 하고 있다. 자료제공 : 사회정화위원회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들의 대부분은 오늘을 슬기롭게 살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쓸모있는 것들이지만 더러는 버려야 할 쓸모없는 유산도 많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중의 하나가「남의 이야기」를 잘하는 우리 국민들의 습성이다.

어른들의 술자리에서, 친구간의 대화에서 심지어 부녀자들의 모임에서도 화제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비판하거나 험담으로 혈뜰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유독히 우리 민족에게 많다는 사실이다.

정치이야기도 그렇고, 사업 이야기도 그렇고, 친척이야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학문을 생업으로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반드시 어떤 사람을 화제로 삼으면서 몇 번 목을 비틀었다 놓았다를 손쉽게 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별로 없다. 유럽이나 동남아 여러나라에서는 생활해 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일본과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저희 들끼리 모여 놀더라도 좀처럼 남

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사업가들은 사업이야기, 정치가들은 정치이야기, 학자들은 학문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히 주제로 등장하면서 상당히 밝고 건전한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화제의 대부분을 남의 이야기로 메우려는 습성에 빠지고 말았을까. 여기에는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이시다(石田)가 밝힌 역사적 인자설(因子說)의 관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게 된다.

이시다의 역사적 인자설이란 지나간 역사과정에서 각 시대의 특성이 그대로 사회적 성격으로 고착돼 개인적인 인성으로까지 발전된다는 관점으로 예를 들면 오랜 기간의 식민지 경험은 노예 근성을 갖게 만든다든가 장기간 독재정치는 소극성과 수동적 성격을 낳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버려야 할 유산중의 하나인 타인 비방이나 중상모략의 습성은 역사적 인자설에서는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을까.

멀리는 조선 5백년간의 사색당파(四色黨派)의 정치풍토에서,

가까이는 일제 식민지나 6·25, 그리고 4·19와 5·16등의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사회격변이라 하겠다.

사색당파는 자파끼리만 늘상 물려다니면서 타파를 매도하고 무조건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자파에 대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습성과 타성에 젖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몇 백년 전의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하겠다.

여·야는 상대방 정책이나 정견에 대한 대결이 아니라 오히려 개개인의 사생활을 들추고 신상 문제로 약점을 찾으려는 극히 비정치적인 미숙한 수준에 머물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세기여 가까운 일제의 통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은 상대방수의 반민족적 친일파 인사들 때문에 생사를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른바 독립투사들에게 자연히 매국노들에 대한 질타가 모임에서의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민족 반역자에 대한 질타와 힐책은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지만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득세하였던 친일파들의 철면피들 중에는 심지어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사를 일삼았던 것이다.

그 뒤에 닦쳐온 6·25와 군사혁명 정부의 불안한 사회상은 이제 우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남을 죽이고 매장해야 할 극단적인 불신과 불화의 인간관계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하겠다.

반공정신 무장으로 독재정권을 이끌어 나갔던 이 정권시대 때는 가령 자신의 과거 비행이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그에게 용공분자라는 최후의 모함과 올가미를 먼저 씌움으로써 살아남으려 하였던 사회풍조가 있었고 그런 논리는 정치적 차원에서조차 간혹 나타났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다행히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은 사라져 버렸지만 아직도 절대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신의 노력으로 그를 따라잡겠다는 작오보다는 상대방을 비방과 모략으로 자기 아래의 위치까지 끌어 내리려는 심리가 여전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태복음)」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태도라 하겠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육두문자 쓰기 다음으로는 남의 험담기만큼 재미있고 살아 움직이는 말도 없으리라. 그래서 남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는 기독교도, 만물을 자비로 돌아보라는 계명의 불교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현세인지도 모른다.

역시 마태복음(7장7절)에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냐」라고 타인의 비방을 될수록 삼가도록 경고하는 비유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의 기독교 신도들이 누구보다 시끄럽고 전쟁까지 왜 일으키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남에 대한 비방이나 모함의 심리적인 해석으로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이며 보상심리이기도 하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

하여 남의 잘못을 들추어 내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의 훌륭한 점을 무시하고 깎아버림으로써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꾀하는 이기적 본능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들지않고 가능한 한 약점이나 결점만을 가려내어 침소봉대하면서 비방과 모함을 쉽게 하려 한다. 그리고 이들은 상대방이 없을 때는 곧잘 큰소리 치다가도 막상 본인이 나타나면 그만 잠잠해지면서 충고는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사람 이야기할 때가 제일 피로한 것이다. 서로의 취미 이야기나 직업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얼마나 생산적이고 즐거운 일인가. 이제 우리들도 성숙된 문화국민이다. 서로의 대화에서 부담감 없이 듣고 즐기는 건전한 내용의 화제를 갖도록 하자.

우리의 유산 중에는 이렇게 버려야 할 것만이 있는것도 아니다. 친절성과 근면성, 그리고 인내심 등등의 본받을 좋은 유산들도 많은 것이다.

(정화추진위원회 제공)

* * * * *

'86을 발판삼아 '88에서 뛰어보자

4 천만의 정성으로 성공시킨 '86대회